

있습니다. 훌륭한 어머니, 부인은 건강 때문에 여기 머물 수밖에 없으시다만, 어린 아기씨, 아기씨께서는 여지가 없으세요. 신의 섭리를 따르시고, 비록 부당할지라도 우리의 나이 든 친지들의 뜻에 따르셔야 합니다. 이는 하나의 희생이지만, 또한 하느님의 명이기도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몸을 바치셨죠. 그러니 그분을 본받아, 가족의 안녕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씨의 프랑스 여행은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영 그곳에 가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 우리 귀여운 아기씨께서는?”

비르지니는 눈을 내리깐 채, 파들파들 떨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네.

“만약 그것이 하느님의 명이라면, 결코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신교사는 집을 나온 뒤, 총독에게로 가서 부탁받은 심부름을 완수했다고 보고했네. 그러는 동안 라 투르 부인은 도맹그를 내게 보내, 비르지니의 출발에 대한 내 의견을 구하고자 하니 자기 집에 들리주길 부탁한다는 말을 전했다. 나로서는 그 아이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네. 나는 행복을 얻는 만고불변의 이치로서, 부에서 주어지는 모든 이로움보다 자연이 주는 이로움을 더 중히 여겨야 하며, 집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굳이 바깥에서 구하지는 말